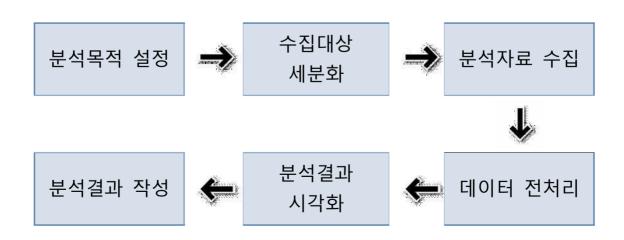
소년범죄 발생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분석목적

- 최근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죄질도 나빠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 행정구역별 소년인구수 대비 소년범죄율 분석을 통하여 소년범죄율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에 두고 그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함
- 프로젝트 기한 : 2022. 06. 13. ~ 2022. 06. 29.
- 분석 내용 :
 - 전국 행정구역별 소년인구수에 대한 소년범죄 비율분석
- 소년범죄의 범죄종류별 재범률과 성별에 따른 범죄전과 분석
- 소년범죄율 및 소년범죄 건수대비 치안행정기관(경찰서, 지구 대, 파출소)의 분포 분석
- 딥러닝 LSTM 순환신경망을 통한 다음 년도 소년범죄율 예측 분석

□ 분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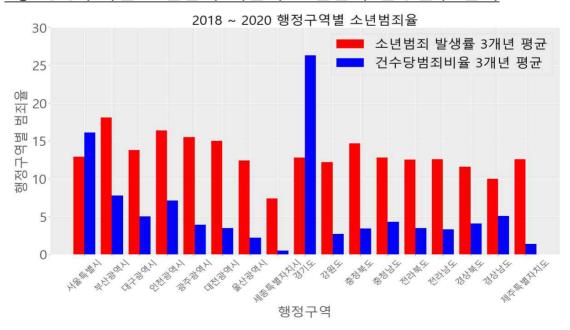


□ 활용데이터

| 목록 | 주요칼럼 | 데이터 건수 | 수집기간 | 출처 |
|---------------------------|---------------------------------|-----------|---------------|-------------------|
| 소년천명 당 소년범죄발생 건수_시도 | 소년인구, 소년범죄발생건수, 천명 당 발생건수 | 197,030 | 2018~202 | kosis (국가통계포털) |
| 소년범죄 재범기간 | 범죄별 소계, 각 범죄별 재범기간 | 196,869 | 2018~202 0 | kosis (국가통계포털) |
| 소년범죄자 전과 | 범죄별 소계, 범죄전과 | 80,270 | 2018~202 0 | kosis (국가통계포털) |
| 소년범죄자 성별 | 범죄별 전과, 소년범 성별 | 195,843 | 2018~202 0 | kosis (국가통계포털) |
| 전국 지역 경찰관서 | 관서명 | 3,027 | 2020 | 경찰청 |
| 지도데이터 | | 1 | 2020 | GIS DEVELOPER |

□ 분석결과

○ 행정구역별 소년범죄 비율과 소년범죄 발생건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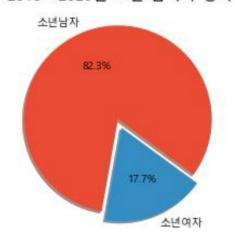
▷ 각 행정 구역의 차트를 해석하면 인구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수 당 범죄 발생비율이 다른 행정구역보다 큰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와 제주, 울산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년인구 당 범죄 발생비율은 범죄건수당 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평균범죄 발생률은 전국평균과 흡사한 약 12~13%정도의 비율을 갖고있는 반면, 건수 당 범죄율이 낮게 나왔던 부산과 대구, 인천은평균 범죄 비율이 15%를 상회하는 비율을 갖는다. 이는 소년인구대비 소년범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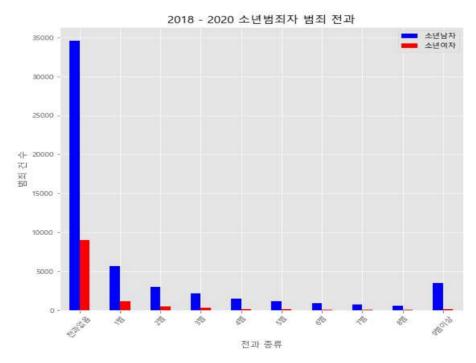
▷ 시각화된 지도로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인구가 거주하는 특별, 광역시에 소년범죄율이 타 행정구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소년범죄 성별 대비 발생건수 분석

2018 - 2020년 소년 범죄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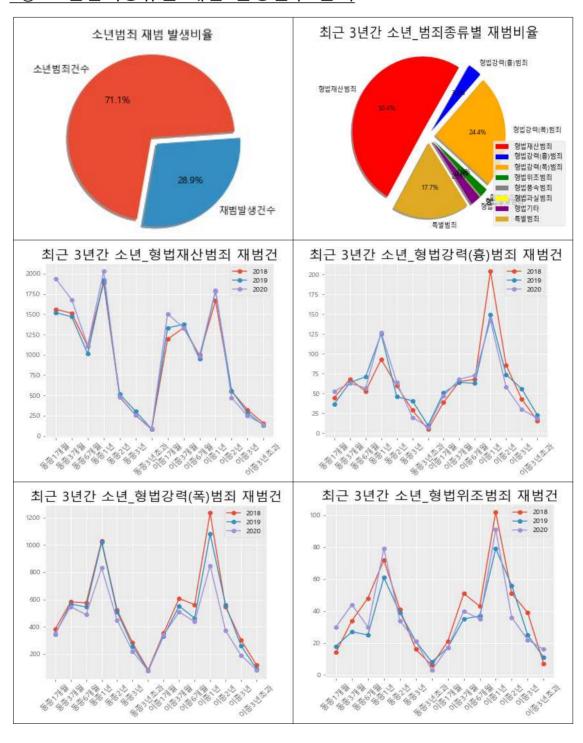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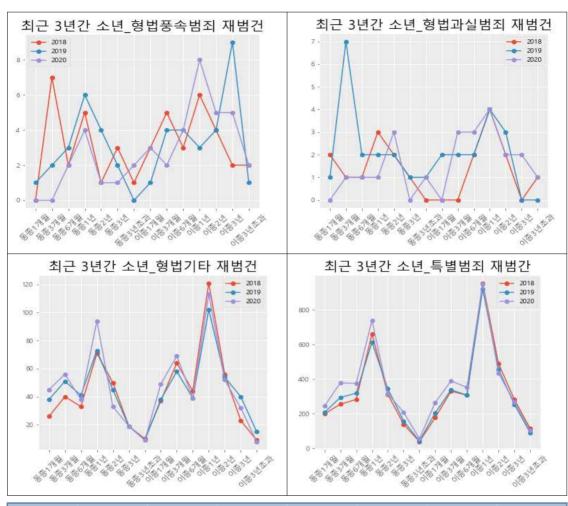
▷ 2018 ~ 2020년 전체 소년범죄자 중 **남자는 약 82.3% 여자는 약 17.7%로 남자가 약 4배정도**의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018 ~ 2020년 평균 소녀범죄는 초범이 남, 여 모두 초범이 가장 많았고 남자는 전과1범, 9범, 2범, 3범 이후 8범까지의 순서 로, 여자는 전과 1범, 2범, 3범, 4범, 9범 이후 순서로 많았다.

○ 소년범죄종류별 재범 발생건수 분석





| 형법재산 범죄 | 형법강력 (흉)범죄 | 형법강력 (폭)범죄 | 형법위조 범죄 | 형법풍속 범죄 | 형법과실 범죄 | 형법기타 | 특별범죄 |
|------------|---------------|---------------|------------|------------|------------|------|-------|
| 50.4% | 3.2% | 24.4% | 1.8% | 0.1% | 0.1% | 2.3% | 17.7% |

▷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약 28.9%로 소년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중 약 1/3의 소년들이 재범자가 되며, 이들 소년재범자들의 세부 범죄 종류를 분석하면 형법이 전체 재범의 82.3%를 차지하고, 특별범죄가 17.7%의 비율을 갖는다. 그 중 형법재산범죄의 비율이 50.4%,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가 3.2%, 폭력범죄가 24.4%, 위조범죄가 1.8%, 풍속 및 과실 범죄가 각각 0.1%, 기타범죄가 2.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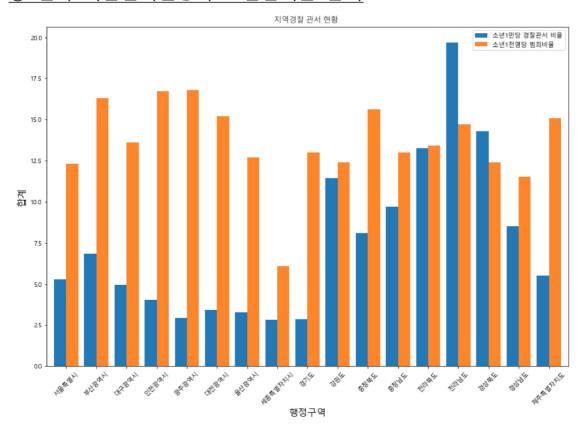
2018 ~ 2020의 3개년의 재범 발생 기간 데이터를 분석하면 가장

재범률이 높은 **재산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의 재범률이 1년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른 종류의 범죄에서 재범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1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3년이 경과하면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야기되는 **강력범죄들의 경우 폭력범 죄의 비율이 약 25%정도로 매우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이 역시 **동종1년과 이종1년이 가장 높은 재범률**을 갖고 3년 초과의 재범률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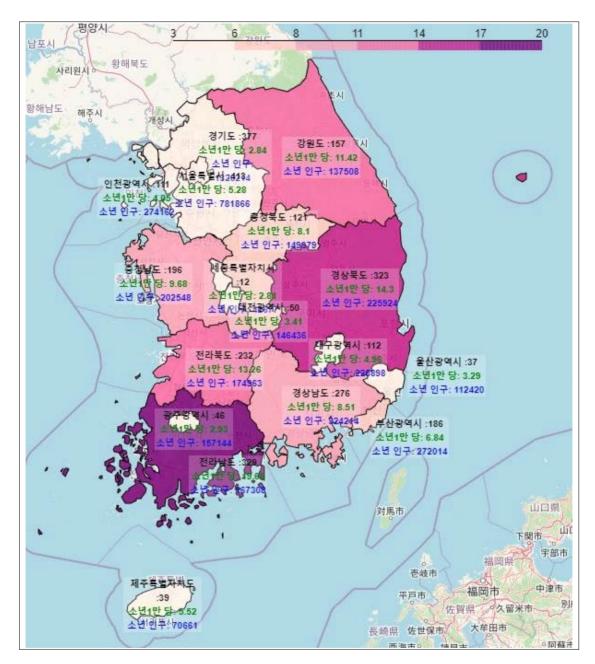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률을 보이는 위조, 풍속, 과실, 기타 범죄들 중 위조, 기타 범죄는 동종1년과 이종1년이 가장 높은 재범률을 갖고 3년 초과에는 낮은 재범률을 갖는 반면 풍속범죄와 과실범죄는 그래프의 모양이 일정치 않은 불규칙적 양상을 보인다.

○ 전국 치안관서현황과 소년범죄율 분석



| 행정구역별 현황(관서 수/소년범죄율) | | | | | | | | |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 |
| 5.28/12.3 | 6.84/16.3 | 4.96/13.6 | 4.05/16.7 | 2.93/16.8 | 3.41/15.2 | | | |
| 울산광역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 |
| 3.29/12.7 | 2.81/6.1 | 2.84/13.0 | 11.42/12.4 | 8.10/15.6 | 9.68/13.0 | | |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비고 | | | |
| 13.26/13.4 | 19.06/14.7 | 14.30/12.4 | 8.51/11.5 | 5.52/15.1 | - | | | |

▷ 분석된 2020년도 치안관서 수와 소년범죄율을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소년인구 당 관서비율은 서울 5.28%, 부산 6.84%, 대구 4.96%, 인천 4.05%, 광주 2.93%, 대전 3.41%, 울산 3.29%, 세종 2.81%, 경기 2.84%, 강원 11.42%, 충청(북) 8.10%, 충청(남) 9.68%, 전라(북) 13.26%, 전라(남) 19.06%, 경상(북) 14.30%, 경상(남) 8.51%, 제주 5.52% 이고 소년범죄율은 서울 12.3%, 부산 16.3%, 대구 13.6%, 인천 16.7%, 광주 16.8%, 대전 15.2%, 울산 12.7%, 세종 6.1%, 경기 13.0%, 강원 12.4%, 충청(북) 15.6%, 충청(남) 13.0%, 전라(북) 13.4%, 전라(남) 14.7%, 경상(북) 12.4%, 경상(남) 11.5%, 제주 15.1% 로 분석 되었다.



▷전국 행정구역별 소년인구 대비 치안관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1중위 분포의 수를 유지 하였다. 각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는 소년인구에 비해 치안 관서의 수가 적은하위 분포의 수로 분석 되었다.

○ 21년 전국 소년범죄 발생률 통계 예측



▷ 분석한 자료로 순환신경망 모델인 LSTM을 이용하여 21년도 소년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 14.6%, 부산 20.8%, 대구 15.1%, 인천 16.5%, 광주 16.3%, 대전 14.1%, 울산 14.1%, 세종 7.4%, 경기 13.4%, 강원 13.7%, 충청(북) 13.4%, 충청(남) 12.7%, 전라(북) 12.6%, 전라(남) 12.0%, 경상(북) 11.6%, 경상(남) 10.7%, 제주 13.7% 로 예측되었다. 다만 분석 표본의 데이터가 적어서 예측의 정확도가 20%정도로 낮게 나와 신뢰성은 많이 떨어진다.

□ 분석결론

- 최근 3년간의 소년범죄율은 증감 폭의 차이가 크지 않게 유 지되는 상황이다.
- 전체 소년범죄 건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약15%), 경기 (약28%)에 집중 되어 있고 각 행정구역별로 약8%내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과 인천은 소년범죄건수에 비해 소년인구 1,000명당 범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소년개인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년범죄 전과자들의 비중은 남자가 약82.3%, 여자가 약 17.7%로 남자의 범죄율이 4배가량 높고, 남자의 경우초범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으며, 전과 1범과 9범이 그 다음을 이루고, 여자의 경우도 초범이 가장 많고 전과 1범부터는 순차적이나 9범이 중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 소년범죄 재범률은 약 29%정도로 전체 소년범 중 1/3이 재 범을 일으키고 있다. 재범은 같은 범죄와 다른 범죄를 1년 이내에 가장 많이 일으키며 3년이 넘도록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범 률이 극명하게 감소한다. 1년 이내의 재범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시기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범률을 줄이는 방법 일 것이다.
- 20년도 **치안 관서의 수와 소년범죄 비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년평균 범죄율과 비교해서 20년에 범죄율이 낮아져있다. 치안관서 및 치안관리 인원의 비중이 높으면 소년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된 결과로 부족한 치안관서를 범죄율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 증설하거나 치안관리 인원을 충원하면 소년범죄율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